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마태 14,13-21 (가))

## 문광 스님 초청 강연

### 8월6일 오후4시 LA한국교육원

탄허학의 대가인 문광 스님 초청 강연 '한류의 뿌리를 찾아서' 가 8월 6일(토) 오후 4시 LA한국교육원 강당(680 Wilshire Pl., LA, CA 90005)에서 열린다.

'미주현대불교' 가 창간 33주년을 기념해 UC LA한국불교학 프로그램 돕기 일환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남가주연합회, LA포교사단, LA동국대학교, 우담바라회, 달마 범우회가 후원한다.

문광 스님은 탄허학의 실질적 정립자란 평가를 받는다. 탄허 스님은 유불선과 기독교까지 섭렵하고 한국의 통일과 밝은 미래를 예언했다.

문광 스님은 경허-한양-탄허-통광으로 이어지는 전통 강맥의 전수자로 동국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수학하고 한국중앙연구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회 원효학술상(대학원생 부문)과 제1회 탄허학술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이사이며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연구교수이다. 저서로는 <탄허선사의 사교 회화 사상>, <한국과 중국 선사들의 유교 중화담론>, <선문염송 요적>, <탄허사상 특강> 등이 있다. 유튜브 '문광스님 TV' 에서 화엄학, 선가귀감, 선문염송, 중론, 금강경 일문서, 미륵사상, 탄허사상 특강, 한문불전의 기초, 불교의 종지 등 불교와 동양학의 핵심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주최 측은 "한국의 통일과 밝은 앞날을 내다보신 탄허 스님의 전통 강맥을 이어받은 문광 스님이 LA에 오신다."면서 "스님의 이번 특별 강연에서는 한류의 뿌리를 밝히며 동포들에게 밝은 미래를 펼쳐보일 것이다. 한국 문화의 정수를 공부하는 UCLA한국불교학과에 힘을 보태기 위한 문광 스님 초청 강연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연 참여는 무료이며, 현장에서 UCLA의 한국불교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석좌교수직의 신설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도 열린다. 기부금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의: (213) 503-0039, (213) 905-9674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못할 짓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다. 3일 굶고 나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있다. 아무리 금강산이 좋다해도 배가 쪼르륵 소리를 내면 구경도 시시해지고 귀찮아질 것이다.

설움 중의 큰 설움은 배고픈 설움이다. 남들은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나의 배만 쪼르륵 소리를 내고 있다면, 더구나 내 자식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다면 그 설움이야 오죽하겠는가!

예수님은 배고픈 자의 설움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였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 주변은 사람들로 붐볐다. 예수님은 매일 그 일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셨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쉬고 싶으셨다.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피신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곳까지 찾아와서 애원하였다.

예수님은 하루종일 병자들을 낫게 하셨다. 해가 서산에 걸려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돌려보내자고 예수님께 재촉하였다. 그들은 지쳐있었다.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좀 쉬면서 맛있는 음식과 대포 한잔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를 더 내다 보고 계셨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계셨다.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을 가슴에 품고 계셨다.



구약성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빵이 많아진 기적이 나온다.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다. 엘리야는 사렙다 마을 과부에게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러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범상치 않음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다.

예수님의 배고픈 자에 대한 연민의 정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그분은 우리 교회더러, 우리 각자에게, 먹을 것을 배고픈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보잘 것 없는 것을 바칠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여 주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에게 주라!"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다. 우리가 동전 한 닢, 1,000원 짜리 지폐를 들고 이것으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킬 수 있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을 가지고 큰 기적을 이루어내신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연민의 정이 가득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배고픈 자를 가엾게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기산 신부-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1431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5에 있습니다)

9	1		5		2	
			4	2		3
	2		1	6		
		9		4		5
6				5		7
	8	7		3	9	
					6	5
2			6	8		
		1			8	2